

##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과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의 비교 연구

이태규 · 김상혁 · 이준희 · 이수경 · 김달래 · 고병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HamsanSachon DongyiSuseBowon GaboGubon』 and 『SangGyoHyeonTo DongyiSuseBowon』

Lee Tae-Gyu, Lee Soo-Kyung, Kim Dal-Rae, Koh Byung-H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ssociations between 『HamsanSachon DongyiSuseBowon GaboGubon』 and 『SangGyoHyeonTo DongyiSuseBowon』

#### 2. Methods

A comparative study of authors, colophons, tables of contents and texts of 『HamsanSachon DongyiSuseBowon GaboGubon』 and 『SangGyoHyeonTo DongyiSuseBowon』 was made.

####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There was a close connection between 『HamsanSachon DongyiSuseBowon GaboGubon』 and 『SangGyoHyeonTo DongyiSuseBowon』, compared their authors, colophons, tables of contents, texts, and so on.
- 2) It is supposed that 『SaSangInByeonJeungRon』 of 『HamsanSachon DongyiSuseBowon GaboGubon』 was not added any touches and 『SaSangInByeonJeungRon』 of 『DongyiSuseBowon』 (GyeongJaBon) was not revised.
- 3) 『DongyiSuseBowon GaboGubon BokWonBon』 and text of 『SaSangUiHak』 should be amended partially.

**Key Words :** DongyiSuseBowon, GaboGubon Xylographica, Lee Je-ma

## I. 緒 論

東武는 1893年 7月 13일부터 1894年(甲午年) 4月 13일까지 漢南山中에서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을 저술하였고, 1900年(庚子年) 9月 21日 64歲로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東醫

壽世保元』(庚子本)을 改抄하였다.

東武 死後인 1901年(辛丑年)에 栗洞契가 新舊本을 합하여 『東醫壽世保元』(辛丑本)<sup>1</sup>을 처음으로 발행하였고, 이후에 1941年 韓斗正이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七版本)<sup>2</sup>을 편집, 발행하기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東醫壽世保元』이 발행되었다<sup>3</sup>.

그리고, 2000年 東武의 從曾孫인 李聖洙를 통해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을 抄錄한 것으로 추정되는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

• 접수일 : 2008년 11월 1일      승인일 : 2008년 11월 10일  
• 교신일자 : 고병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33      FAX : +82-2-958-9234  
E-mail : kmc2516@khu.ac.kr

舊本』<sup>4</sup>이란 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sup>5</sup>. 李聖洙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의 원본은 東武의 아들인 龍海(1859~1922)의 川西面 雲洞理 집 에 몇 개의 두루마리 문치로 되어 있던 甲午本 이었는데, 1940년(庚辰年)에 李鎭胤(李聖洙의 先親)이 咸興 沙村<sup>2)</sup>의 집에서 韓敏甲으로 하여금 東武의 두루마리 글과 『東醫壽世保元』 活字本을 比較하여 수일간에 걸쳐 抄錄 하게 한 것이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이라고 하였다<sup>5,6</sup>.

현재까지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 관한 연구로는 서지학적 연구<sup>2-7</sup>, 병증론에 관한 연구<sup>8-14</sup>, 약물 및 처방에 관한 연구<sup>15-18</sup>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辛丑本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에 관한 연구로는 李<sup>19</sup>의 연구가 유일하였다. 그리고,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과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중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논란들은 주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辛丑本과 비교, 분석하거나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을 辛丑本과 비교, 분석한 연구들에서 나타났다.

이에 본 저자는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과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몇 가지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對象 및 方法

### 1. 研究對象

1) 본 연구는 東武의 從孫인 李鎭胤의 주도로 1940년(庚辰年)에 韓敏甲이 抄錄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栗洞契가 1901년(辛丑年)에 발행한 『東醫壽世保元』(辛丑本), 韓斗正이 1941년(昭和16年)에 편

집, 발행한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七版本)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研究方法

1) 본 研究에서 사용한 版本의 名稱은 기존의 연구<sup>5,6</sup>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① 현재 傳하지 않지만 東武가 甲午年에 著述한 東醫壽世保元의 原本을 ‘甲午本’이라 칭하였다.
- ② 李鎭胤의 주도로 1940년(庚辰年)에 韓敏甲이 抄錄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4</sup>은 ‘甲午抄錄本’이라 칭하였다.
- ③ 2001년 四象體質醫學會에서 ‘甲午抄錄本’을 근거로 印本(辛丑本)의 해당 조문을 삽입하여 복원한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sup>20</sup>은 ‘甲午舊本 復元本’이라고 칭하였다.
- ④ 현재 傳하지 않지만 東武가 庚子年까지 改抄한 東醫壽世保元의 原本을 ‘庚子本’이라 칭하였다.
- ⑤ 栗洞契가 1901년(辛丑年)에 발행한 『東醫壽世保元』(初版本)을 ‘辛丑本’이라 칭하였다<sup>3)</sup>.
- ⑥ 韓斗正이 1941년(昭和16年)에 편집, 발행한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七版本)<sup>2</sup>을 ‘七版本’이라 칭하였다<sup>4)</sup>.

3) 일부에서는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에서부터 七版本까지 모두를 통칭하여 ‘辛丑本’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栗洞契가 1901년(辛丑年)에 발행한 初版本만을 辛丑本이라고 칭하였음을 밝혀둔다.

4) 李<sup>19</sup>에 의하면 七版本은 雲坡 尹完重에 의해서 謄本 되어 대학가와 임상가에 소량으로 보급되었으며, 七版本의 原本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유일하게 1冊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尹完重이 1972년에 再版謄本한 七版本<sup>21</sup>과 달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七版本에 目錄과 附錄(補遺方, 判關 기록, 字解, 吐解)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원래 七版本에는 目錄과 附錄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실제로 필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확인한 바로도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의 원본에는 원래 目錄과 附錄 부분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韓斗正의 師事를 10년이나 받았다는 朴奭彦이 『東醫四象大全』<sup>22</sup>序文에서 “1941년 2월 일

2) 安<sup>7</sup>에 의하면 咸山은 현재의 咸興을 일컫고, 沙村은 東武의 본가가 위치한 동네이름이라고 한다.

2) 본 연구에서는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관련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甲午舊本 復元本과 전국한의과대학의 공동교재인 『四象醫學』(이하 ‘『四象醫學』’)³ 원문편에서 문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 Ⅲ. 本 論

#### 1.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관련성

##### 1) 筆寫 또는 편집, 발행 주체들의 관계

###### ① 甲午抄錄本の 筆寫 주체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李聖洙(東武의 從曾孫)의 증언에 의하면, 甲午抄錄本은 1940年(庚辰年)에 李鎭胤(東武의 從孫)이 咸興 沙村의 집에서 韓敏甲으로 하여금 東武의 두루마리 글과 東醫壽世保元 活字本을 比較하여 抄錄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甲午抄錄本의 본문 첫 장 하단에는 현 소장자인 李聖洙의 선친 李鎭胤의 인장과 대형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고, 마지막 장에 ‘歲庚辰七月二日韓敏甲筆’이라고 韓敏甲이 筆寫한 것이 명시되어 있다<sup>7</sup>.

이를 통해 보면, 甲午抄錄本의 筆寫 자체는 韓敏甲이 한 것이 맞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李鎭胤인 것이 분명하다.

###### ② 七版本의 편집, 발행 주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七版本의 版權紙에는 ‘編輯兼發行者 韓斗正’이라고 하여, 咸興에 살던 韓斗正이 七版本의 편집 및 발행자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七版本의 附錄에는 『東醫壽世保元』, 『格致藁』, 『明善錄』 등의 발행과 관련된 사실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七版本에 대해서는 韓斗正이 편집하고, 韓敏善이 校閱하고, 栗洞契가 발행한 것으로 기록해 놓았다.

이를 통해 보면, 韓斗正이 七版本을 편집하고 발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③ 李鎭胤과 韓斗正의 관계

甲午抄錄本의 筆寫를 주도한 李鎭胤과 七版本을 편집, 발행한 韓斗正은 모두 保元契<sup>5)</sup>에서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학문적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李聖洙의 증언에 따르면, 甲午抄錄本의 원본인 甲午本이 東武의 아들인 龍海의 ‘川西面 雲洞理’ 집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였는데<sup>6</sup>, 七版本의 발행과 비슷한 시기인 1940년에 韓斗正이 편집, 발행한 『格致藁』의 版權紙에는 韓斗正의 原籍을 ‘川西面 雲洞理’로 기록하고 있다<sup>6)</sup>. 이를 통해 보면, 李鎭胤의 從叔인 龍海의 집과 韓斗正의 집안이 원래 같은 마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李鎭胤과 韓斗正은 학문적으로 교류하기 이전부터, 지역

제7판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 編述者 韓斗正 선생께서 원문에 없었던 附補遺方과 漢子解字와 解吐者를 記載하신 것은 많은 功力을 들인 것이다”라고 밝힌 점,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과 尹完重이 1972년에 再版謄本한 문헌의 판형이 서로 동일한 점,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본문에도 字解를 위한 표시(○)가 글자 옆에 존재하지만 정작 字解를 해 놓은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의 目錄과 附錄이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七版本에도 尹完重이 再版謄本한 문헌과 같이 目錄과 附錄이 존재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5) 『四象醫學』에는 “사상의학의 연구는 처음에는 栗洞契(金永寬, 韓稷淵, 宋賢秀, 韓昌淵, 崔謙鏞, 魏俊赫, 李燮垣 등)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941년에는 保元契(李鎭胤, 韓秉武, 韓斗正, 韓敏善, 洪淳用 등)에서 『東醫壽世保元』을 출판하기도 했고, 1945년에는 崔承達, 李賢在 등을 중심으로 사상의학 보급회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6) 七版本의 版權紙에는 韓斗正의 주소만 ‘咸興府昭和町二丁目四十六番地’라고 기재해 놓고, 原籍은 기재해 놓지 않았다. 格致藁의 版權紙에는 韓斗正의 주소를 七版本과 똑같이 ‘咸興府昭和町二丁目四十六番地’라고 적었을 뿐만 아니라 原籍까지 ‘咸州郡川西面 雲洞理 三七九番地’로 자세하게 기재해 놓았다.

Table 1. 東武 저작물들의 간행 시기

날짜	書名, 版權紙 기록 사항				
	明善錄 <sup>[1]</sup>	東武遺稿(藏書閣) <sup>[2]</sup>	格致藁 <sup>[3]</sup>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sup>[4]</sup>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sup>[5]</sup>
1939.7.22	허가				
1940.1.17	인쇄				
1940.1.25	발행				
未詳(추정)		筆寫			
1940.2.7			허가		
1940.6.28			인쇄		
1940.7.5			발행		
1940.8.3					허가
1940.8.5				筆寫	
1941.2.10					인쇄
1941.4.20					발행
編輯및發行者	韓國弘 편집, 발행 韓斗正 筆寫로 추정		韓斗正 편집, 발행 李鎭胤주도, 韓敏甲필사		韓斗正 편집, 발행
印刷者	朴在福		朴在福		李基福
印刷所	德興印刷所		德興印刷所		以文社
發行所	明善錄編輯所		韓國弘方		金重瑞方

- [1] 七版本의 附錄에는 1939년 5월 6일부터 1939년 6월 17일까지 謄本하고, 1939년 8월 30일부터 1940년 1월 17일까지 인쇄한 뒤, 1940년 1월 26일에 출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2] 『東武遺稿』(藏書閣)는 筆寫본의 형태로 발견되었으며, 筆寫자와 筆寫 시기에 대한 별도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성립시기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李<sup>19)</sup>에 의하면 『明善錄』이 간행된 이후에 ‘底本 東武遺稿’를 韓斗正이 ‘문집초고본’의 형태로 『東武遺稿』를 筆寫했고, 그 이후에 『格致藁』가 발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東武遺稿』의 성립시기는 『明善錄』 발행시점과 『格致藁』 발행시점의 사이 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七版本의 附錄에는 1940년 3월 18일부터 1940년 7월 5일까지 인쇄한 뒤, 1940년 7월 21일에 출판하였으며, 韓國弘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4] 甲午抄錄本에는 ‘歲庚辰七月二日韓敏甲筆’로 되어 있는데, 이를 陽曆으로 바꾸면 1940년 8월 5일이 된다.
- [5] 七版本의 附錄에는 1940년 12월 1일부터 1941년 1월 16일까지 인쇄하고, 1941년 2월에 출판하였으며, 韓斗正이 편집하고, 韓敏善이 校閱하고, 栗洞契가 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적으로 서로 교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 2) 문헌의 성립시기

### ① 東武 저작물들의 간행 시기

1940년을 전후하여 함흥에서는 東武 저작물의 간행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sup>19,23)</sup>. 이에 대해서 李<sup>19)</sup>는 “특히 韓斗正은 1940년에 최초로 『格致藁』를 印刷發刊하고, 1941년에는 七版本 『東醫壽世保元』을 발행하는데, 藏書閣 『東武遺稿』가 정리되는 시기도 이 무렵이고, 韓敏甲(1899-1950)이 筆寫한 『咸山沙

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도 1940년에 함흥에서 筆寫된 것에서 알 수 있듯, 四象醫學을 새롭게 정리하려는 이 당시 咸興의 분위기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sup>7)</sup>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보면 甲午抄錄本의 筆寫와 七版本의 발행이 東武 저작물의 간행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된다.

실제로, 甲午抄錄本, 七版本 뿐만 아니라

7) 李<sup>19)</sup>는 藏書閣 『東武遺稿』의 筆寫시기를 유추하면서 『格致藁』의 파지 이면지를 활용해 藏書閣 『東武遺稿』를 기록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明善錄』의 이면지를 활용했다.

비슷한 시기에 발행되거나 筆寫된 『明善錄』, 『東武遺稿』(藏書閣), 『格致叢』 등의 발행 또는 筆寫시기를 版權紙 등을 통해 살펴보면(표 1), 東武가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明善錄』부터 시작하여, 『東武遺稿』(藏書閣), 『格致叢』, 甲午抄錄本을 거쳐 東武의 최종 저술인 七版本까지, 東武의 생애를 관통하는 거의 일관된 순서를 가지고 東武 저작물의 간행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甲午抄錄本の 筆寫와 七版本의 간행 시기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간행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甲午抄錄本の 본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歲庚辰七月二日韓敏甲筆’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陽曆으로 환산하면 1940년 8월 5일이므로, 이 때 韓敏甲이 甲午抄錄本の 筆寫를 마친 것이 된다.

그리고, 七版本의 간행시기를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七版本<sup>2</sup>의 版權紙에는 1940년 8월 3일 許可, 1941년 2월 10일 印刷, 1941년 4월 20일 發行된 것으로 되어 있고, 尹完重이 1972년에 再版謄本한 七版本<sup>21</sup>의 附錄에는 1940년 12월 1일부터 1941년 1월 16일까지 印刷하고, 1941년 2월에 출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七版本의 版權紙가 좀 더 신뢰할 만한 기록이라고 생각되므로) 그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당

시는 일제시대로서 출판법에 의해 모든 출판물들이 사전에 검열당하고 출판을 허가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sup>24,25</sup>, 韓斗正이 七版本을 허가 받은 날짜로 되어 있는 1940년 8월 3일 이전에 七版本의 초고를 완성하고, 그것을 검열받기 위해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 제출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즉, 七版本의 초고가 완성된 시기는 甲午抄錄本の 筆寫가 끝난 1940년 8월 5일 이전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甲午抄錄本の 筆寫와 七版本의 발행이 東武 저작물의 간행 사업의 일환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七版本의 초고가 완성된 후 甲午抄錄本の 筆寫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3) 目錄과 條文數

#### ① 目錄과 條文數의 존재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은 目錄과 條文數가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韓 등<sup>5</sup>은 “甲午抄錄本の 主要한 特徵중에 하나가 目次<sup>10</sup>와 條文數이다. 1901年 처음 出版된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 目次와 條文數가 기술되지 않으며...”라고 하였는데, 七版本을 보면 甲午抄錄本과 마찬가지로 目錄과 條文數가 기재되어 있다. 目錄과 條文數가 기재되어 있는 『東醫壽世保元』 版本으로는 七版本이 유일한데, 이러한 점에서 甲午抄錄本과 서로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 ② 目錄의 형태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은 目錄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甲午抄錄本은 ‘東醫壽世保元目錄’이라는 명칭으로 제목이 되어

볼 때, 이 판본이 검열을 위해 제출되었던 책이거나, 늦게 잡아도 1945년 해방이전에 기증된 책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의 版權紙에 적힌 기록이 좀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10) 甲午抄錄本에는 ‘東醫壽世保元目錄’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目次’라는 단어보다는 ‘目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8) 각 문헌의 版權紙에 기재된 내용과 七版本의 附錄에 적혀 있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版權紙의 내용은 책이 출판되기 전에 미리 인쇄된 것이고, 七版本 附錄의 서술은 『格致叢』, 『明善錄』 등이 출판된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차라고 생각된다.

9) 尹完重이 再版謄本한 판본에서 볼 수 있는 七版本 附錄에 적힌 七版本에 관한 相關기록은 七版本을 인쇄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다소 부정확하게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七版本의 서지정보를 보면 분류기호가 ‘조선총독부고서분류표→古朝68’로 되어 있고, 본문 첫페이지 우측 하단에는 ‘朝鮮總督府 警務局 寄贈本’이라는 직인이 찍혀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Table 2. 『咸山抄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目録과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目録에 기재된 條文數

目録 <sup>[1]</sup>	『咸山抄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		目録
	條文數 <sup>[2]</sup>		條文數 <sup>[2]</sup>		
	甲午本	庚子本 <sup>[3]</sup>	七版本 <sup>[3]</sup>		
卷之一	97	(97) <sup>[4]</sup>	97		卷之一
•性命論	37		37		性命論
•四端論	26		26		四端論
•擴充論	17		17		擴充論
•臟腑論	17		17		臟腑論
卷之二	221	218	220		卷之二
醫源論	6	9	9		醫源論
少陰表病論	60	52	52		少陰人表熱病論
裏病論	64	67	67		少陰人裏寒病論
泛論	27	24	24		泛論
經驗藥方	23又19		42○1		經驗藥方
新定藥方	22	24	24○1		新定藥方
卷之三	143	139	143		卷之三
少陽表病論	31	45	45		少陽人表寒病論
裏病論	33	29	29		少陽人裏熱病論
泛論	41	29 <sup>[5]</sup>	29 <sup>[5]</sup>		泛論
經驗藥方	10又9		19○4		經驗藥方
新定藥方	19	17	17		新定藥方
卷之四	138	71加1	165		卷之四
太陰表病論	23	11	11		太陰人表寒病論
裏病論	10	36	36		太陰人裏熱病論
○經驗藥方	4又9		舊本○13		經驗藥方
新定藥方	17	24	24		新定藥方
○太陽外感病論	4		以下舊本○4		太陽人外感病論
○內觸病論	11		11		太陽人內觸病論
○經驗藥方	10又2		12		經驗藥方
○新定藥方	2		2○2		新定藥方
○廣濟說	25		25		廣濟說
○辨證論	25加1	(1) <sup>[6]</sup>	25		辨證論
總 條文數	599	526	625		總 條文數

- [1] 甲午抄錄本에는 특징적으로 篇名 앞에 작은 방점(●)또는 작은 원형(○)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다.
- [2] 目録에는 條文數를 漢子로 기재했으나, 편의를 위해 표에서는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었으며, 기재된 條文數는 실제 본문에 기재된 條文數가 아니라 目録에 기재된 條文數이다.
- [3] 甲午抄錄本 目録에서 작은 원형(○)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庚子本の 條文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篇과 七版本 目録에서 ‘舊本’ 또는 ‘以下舊本’에 해당하는 篇은 도표에서 음영처리하였다. 두 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실제로 甲午抄錄本에는 條文數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庚子本の 총 條文數가 526조가 되기 위해서는 卷之一의 條文數가 97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에는 ( )로 표시하였다.
- [5] 目録에는 條文數가 29條文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辛丑本과 七版本의 본문의 條文數를 세어 보면 23조문 뿐이다.
- [6] 실제 目録에는 條文數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庚子本の 총 條文數가 526조문이 되고 卷之四의 條文數가 ‘71加1’이 되려면 ‘加1’에 해당하는 한 조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末尾의 조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에 ( )로 표시하였다.

있고, 七版本은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目録’이라는 명칭으로 제목이 되어 있다. 그리고, 둘 다 ‘東醫壽世保元目録’이라는 제목보다 한 칸 아래로 내려서 卷之一, 卷之二, 卷之三, 卷之四

등의 卷 目録과 總條文數를 기재하고 있고, 그보다 한 칸 아래로 더 내려서 性命論, 四端論 등과 같은 篇名을 기재하고 있으며, 篇名 아래에 작은 글씨로 條文數를 기재하고 있다<sup>1)</sup>.

## ③ 條文數의 유사성

甲午抄錄本 目錄에는 篇名 아래에 甲午本과 庚子本の 條文數를 두 줄로 함께 기재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甲午本の 條文數이고, 왼쪽은 庚子本の 條文數를 의미한다<sup>12)</sup>.

甲午抄錄本에 기재되어 있는 庚子本の 條文數를 七版本과 비교해보면, 각 卷의 條文數 합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지만, 각 篇마다 기재되어 있는 條文數는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 ④ 『少陽人泛論』의 條文數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少陽人泛論의 條文數이다. 甲午抄錄本에는 庚子本の 少陽人泛論의 條文數를 29條文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辛丑本 본문의 條文數를 헤아려 보면 23條文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韓 등<sup>5)</sup>은, 첫째로 抄錄者인 韓敏甲의 誤謬일 可能性이 가장 높고, 둘째로 실제 庚子本에서 29개의 條文이 있었으나 東武의 제자들이 辛丑本 등을 發行하면서 6條文을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七版本의 目錄에서 이 부분을 살펴 보면, 甲午抄錄本の 目錄과 마찬가지로 少陽人泛論의 條文數가 29條文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七版本은 少陽人泛論의 條文數를 제외한 나머지 각 卷의 條文數를 비교적 정확하게 헤아려서 기재했는데, 經驗藥方과 新定藥方 부분에서는 처방 외의 조문까지도 별도로 정확하게 헤아려서 ‘○’로 구분하여 條文數를 기재하고, 그것을 總 條文數에 정확하게 합산할 정도로 치밀한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少陽人泛論의 條文數만 실제 본문의

23條文이 아닌 29條文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韓敏甲이 23조문이었던 庚子本 少陽人泛論의 條文數를 29조문으로 잘못 헤아렸고, 辛丑本 다른 卷의 條文數는 정확히 헤아렸던 韓斗正도 少陽人泛論의 條文數만 29조문으로 잘못 헤아렸을 가능성이 있다. 즉, 원래는 23개였던 조문을 우연히도 둘 다 29개의 조문으로 똑같이 잘못 헤아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매우 낮다.

두 번째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甲午抄錄本の 筆寫와 七版本의 편집 주체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七版本의 초고형태를 보고, 韓敏甲이 目錄을 만들 때 베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甲午抄錄本에서는 經驗藥方과 新定藥方の 條文數를 셀 때 七版本과 달리 처방의 條文數만 세었고, 그에 따라 卷의 條文數도 七版本과 다르게 합산한 것을 보면 이것도 가능성이 낮아진다.

세 번째는 栗洞契가 辛丑本을 發行하면서 원래 29조문이었던 庚子本 少陽人泛論 중에서 6條文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甲午抄錄本の 目錄에서 29조문으로 기재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條文數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는 七版本에서도 29조문으로 기재해 놓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

韓 등<sup>5)</sup>도 “庚子本 四象人辨證論의 한 條文을 누락시킨 것을 보면 이러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四象人辨證論」에 관한 논란들’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왜 6개의 條文을 복원시키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는데, 韓斗正이 七版本을 발행하면서 辛丑本의 전통을 존중하여 6개의 條文을 복원시키지는 않고, 다만 庚子本の 條文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庚子本の 흔적을 七版本 目錄에 남겼을

11) 甲午抄錄本에는 卷 目錄 아래에 條文數를 직접 표시했지만, 七版本에는 總條文數를 적은 다음에 卷마다의 몇 條文인지를 다시 적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12) 目錄 마지막에 총 條文數를 기재할 때에도 甲午本の 총條文數를 오른쪽에 기재하고, 庚子本の 총條文數를 왼쪽에 기재하였다.

Table 3. 『威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본문과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 본문의 출처 표시

『威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		출처의 일치여부
본문	출처표시	본문	출처표시	
窮巷僻村	無新本而出印本	窮巷僻村 病起倉卒… 不當用 全方中 所無之藥	(舊本)	일치
張仲景傷寒論中太陰人病 經驗設方藥 四方	出印本無新本	張仲景傷寒論中太陰人病 經驗設方藥 四方	(舊本)	일치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太陰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	全 <sup>[1]</sup>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太陰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	(舊本)	일치
以上諸藥中 杏仁去雙仁 去皮尖·酸棗仁杏仁白果炒用	없음 <sup>[2]</sup>	右太陰人藥諸種 杏仁去雙仁 去皮尖·酸棗仁杏仁白果炒用	(舊本)	일치 가능성[2]
太陽人論	以下出印本無新本	太陽人外感腰脊病論	(以下舊本)	일치
太少陰陽人以今時目見···太陽人數 亦絕少一縣中或三四人十餘人而已	없음	太少陰陽人以今時目見···太陽人數 絕少 一縣中或三四人十餘人而已	(印本)	
此書雖出今人之手···雖一字 誤書則爲作文者之大累	出新本無印本	此書 雖出今人之手···雖一字 誤書則爲作文者之大累	(新本)	일치

[1] 이것은 ‘同’과 同字이다. 甲午舊本 復元本에서는 이것을 ‘全’字로 잘못 기록해 놓았다.

[2] 이 부분은 ‘以上諸藥中’과 ‘右太陰人藥諸種’의 표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辛丑本에도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午抄錄本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은 甲午本을 출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⑤ 庚子本에서 改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표시

甲午抄錄本の 目錄에는 특징적인 점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篇名 앞에 작은 방점(●) 또는 작은 원형(○)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條文數를 기재한 두 줄 중에서 庚子本을 기재한 왼쪽 줄이 공란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七版本의 目錄에도 특징적인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篇名 다음에 條文數를 기재였는데, 일부 篇名에는 條文數 앞에 ‘舊本’ 또는 ‘以下舊本’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두 가지 版本이 서로 일관된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甲午抄錄本 目錄에서 작은 원형(○)이 앞에 붙어 있는 篇名들을 살펴보면, (太陰)經驗藥方, 太陽外感病論, 內觸病論, 經驗藥方, 新定藥方, 廣濟說, 辨證論이고, 이 부분에서 庚子本의 條文數는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sup>13)</sup>.

그리고, 七版本 目錄에는 (太陰人)‘經驗藥方

(舊本)’, ‘太陽人外感病論(以下舊本)’에 ‘舊本’ 또는 ‘以下舊本’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였다<sup>14)</sup>.

여기에서 두 版本을 비교해 보면, 甲午抄錄本 目錄에서 작은 원형(○)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庚子本의 條文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篇과 七版本 目錄에서 ‘舊本’ 또는 ‘以下舊本’에 해당하는 篇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표 2).

한편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張仲景傷寒論中 太陰人病經驗設方藥四方’,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經驗行用要藥九方’, ‘太陽人外感腰脊病論’, ‘太陽人內觸病論’, ‘經驗藥方’, ‘新定藥方’, ‘廣濟說’, ‘辨證論’ 등이 庚子本에서 改抄되지 않았고 庚子本에 조문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임

13) 甲午抄錄本 본문에서도 「張仲景傷寒論中太陰人病經驗設方藥四方」 篇名 다음에 “出印本無新本”이라고 하고,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經驗行用要藥九方」 篇名 다음에 “全”이라고 하고, 「太陽人論」 篇名 다음에 “以下出印本無新本”이라고 하여 그 부분들이 庚子本에 조문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동일하게 기재해 놓았다.

14) 七版本 본문에도 ‘張仲景傷寒論中 太陰人病經驗設方藥四方(舊本)’,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經驗行用要藥九方(舊本)’, ‘太陽人外感腰脊病論(以下舊本)’에 ‘舊本’ 또는 ‘以下舊本’이라는 표현을 작은 글씨로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을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15)</sup>.

⑥ ‘備考’의 존재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은 모두 ‘備考’라는 부분이 존재한다.

甲午抄錄本에는 目錄 다음 페이지인 본문 첫 페이지의 제일 우측 하단에 “(備考)舊本甲午本, 新本庚子本, 印本辛丑本”이라고 備考를 기재했고, 七版本에는 “備考 舊本,甲午本 新本,庚子本 印本,辛丑本 性命論以下原本吐醫源論以下今校懸吐而覽者怨焉”이라고 備考를 기재했다.

‘目錄’과 마찬가지로, 다른 版本들과는 달리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에서만 “備考”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이 版本에 대한 용어설정을 “舊本,甲午本 新本,庚子本 印本,辛丑本”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문헌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다만, 甲午抄錄本이 본문 첫 페이지에 備考가 존재하는데 반해서, 七版本은 目錄에 備考가 존재하며, 七版本에는 ‘性命論 이하는 原本<sup>16)</sup>에 따가 있었지만, 醫源論 이하는 지금 자세히 살펴서 따를 달았으니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차이를 나타낸다.

4) 甲午抄錄本 본문과 七版本 본문의 출처 표시

甲午抄錄本 본문과 七版本 본문에는 조문 다음에 출처를 알려주는 문구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서로 비교하면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이 거의 대부분 일치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① 甲午抄錄本 본문의 출처 표시

15) 辛丑本에는 性命論부터 太陰人諸論까지 改抄하였다고 하였고, 七版本에는 醫源論부터 太陰人諸論까지 改抄하였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目錄 비교를 통해 太陰人諸論 다음의 어느 편부터 改抄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없었다.

16) 여기에서 ‘原本’이라는 것이 庚子本과 辛丑本 중에서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우선 甲午抄錄本 본문을 보면 조문의 출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甲午本에만 있는 조문에는 출처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甲午本과 庚子本에 모두 존재하는 조문들에 대해서는 출처를 ‘出新本’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형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庚子本에는 없고 辛丑本에만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出印本而無新本’ 또는 ‘無新本而出印本’으로 표시하였고, 庚子本에만 있고, 辛丑本에는 없는 조문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出新本無印本’으로 표시하였다.

이 중에서 ‘出印本而無新本’ 또는 ‘無新本而出印本’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4곳<sup>17)</sup>이며, ‘出新本無印本’으로 표시된 부분이 1곳<sup>18)</sup>이다 (표 3).

② 七版本 본문의 출처 표시

韓斗正은 七版本을 편집하면서 필요한 경우 조문 끝에 舊本, 新本, 印本 등으로 그 출처를 표시했는데, 庚子本이 그 출처인 경우에는 단 한 조문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新本)’이라고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으며<sup>19)</sup>, 주로 甲午本이 출처인 경우에 ‘(舊本)’ 또는 ‘(以下舊本)’ 등으로 출처를 밝혀 놓았다<sup>20)</sup>. 그리고, 辛丑本

17) 甲午抄錄本에서 ‘出印本而無新本’ 또는 ‘無新本而出印本’으로 출처를 표시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총 4곳에서 나타나는데, 甲午抄錄本에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4곳의 최초 출처는 甲午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二十二方」:窮巷僻村(無新本而出印本) ② 「張仲景傷寒論中太陰人病經驗設方藥 四方」(出印本無新本) ③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太陰人病經驗行用要藥 九方」(全) ④ 「太陽人論」(以下出印本無新本)

18) 「四象人辨證論」: “此書 雖出今人之手…雖一字誤書則爲作文者之大累 (出新本無印本)”

19) 『東醫壽世保元 七版本 · 四象人辨證論』의 “此書 雖出今人之手 實是千古醫家稀罕之書 此書 任古今之是非 決醫藥之樞軸 雖一字 誤書 則爲作文者之大累(新本)”라는 단 한 조문에서만 유일하게 ‘(新本)’이 출처라는 것을 밝혀놓았다.

20) 七版本에서 ‘(舊本)’ 또는 ‘(以下舊本)’으로 출처를 밝혀 놓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총 6곳에서 나타난다. ①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 二十四方」:“窮巷僻村 病起倉卒…不當用 全方中 所無之藥(舊本)” ② 「張仲景傷寒論中 太陰人病經驗設方藥 四方」(舊本) ③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經驗行

Table 4. 東武의 著書에 나타난 四象人 분포

문헌	저술시기 (東武 나이)	지역	體質, N(%)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太陽人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40대 후반~ 50대 초반		5000(50)	3000(30)	2000(20)	4~5(0.04~0.05)
『東醫壽世保元』(甲午本)	57~58세	北道山谷	3000(30)	5000(50)	2000(20)	3~10(0.03~0.10)
		南中原野	4000(40)	4000(40)	2000(20)	3~10(0.03~0.10)
『東醫壽世保元』(辛丑本)	59~64세		5000(50)	3000(30)	2000(20)	3~10(0.03~0.10)

이 출처인 경우에는 단 한 군데에서 ‘(印本)’으로 그 출처를 밝혀 놓았다<sup>21)</sup>.

이 중에서 출처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舊本)’이나 ‘(以下舊本)’으로 표시된 부분이 5군데이며, ‘(新本)’과 ‘(印本)’으로 표시된 부분이 각각 1군데씩 있다<sup>22)</sup>(표 3).

③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출처 표시 비교

그런데, 이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 출처에 관한 기록 중에서 5곳이 일치하고<sup>23)</sup>, 1곳은 일치할 가능성이 높고<sup>24)</sup>, 四象人 분포에 관한 내용

이 있는 1곳만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이와 같이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이 四象人 분포<sup>25)</sup>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일치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두 版本은 서로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된다.

2.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四象人辨證論」에 관한 논란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四象人辨證論」에서는 四象人의 분포, 「四象人辨證論」 末尾에 기술된 조문, 「四象人辨證論」의 改抄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각각의 문헌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서로 연계해서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해 보았다.

1) 四象人 분포

① 東武 저서들에 나타난 四象人의 분포

東武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sup>26)</sup>되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하 ‘草本卷’)<sup>27)</sup>에는 四象人의 분포에 관한 기록이 최초로 나타난다<sup>26)</sup>. 그리고, 東武가 57~58세에 저술한 甲午本에는 北道山谷과

用要藥 九方」(舊本) ④ 「新定太陰人病應用要藥二十四方」: “右太陰人藥 諸種…酸棗仁 杏仁 白果炒用”(舊本) ⑤ 「太陽人外感腰脊病論」(以下舊本) ⑥ 「補遺方」 桂附霍陳理中湯(以下舊本)  
 21) 『東醫壽世保元 七版本 · 四象人辨證論』: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 一縣萬人數 大略論之 則太陰人 五千人也 少陽人 三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絕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印本).”  
 22) 七版本의 補遺方 부분에는 ‘桂附霍陳理中湯(以下舊本)’라는 출처에 대한 표시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본문이 아닌 附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23) ①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二十二方」: 窮巷僻村(無新本而出印本) ② 「張仲景傷寒論中太陰人病經驗設方藥 四方」(出印本無新本) ③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太陰人病經驗行用要藥 九方」(全) ④ 「太陽人論」(以下出印本無新本) 등의 4곳의 최초 출처가 甲午本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此書雖出今人之手…雖一字誤書則爲作文者之大累(新本)”의 출처가 일치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四象人辨證論」 末尾에 기술된 조문’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4) 「新定太陰人病應用要藥」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에서 각각 ‘以上諸藥中’과 ‘右太陰人藥諸種’으로 표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辛丑本에도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午抄錄本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은 甲午本을 출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5) 「四象人辨證論」의 四象人 분포에 관한 부분은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四象人辨證論」에 관한 논란’에서 살펴볼 것이다.  
 2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 病變之第四統』: “太少陰陽稟賦之人 以今時一縣萬人數斟酌之則 太陰人五千人也 少陽人三千人也 少陰人二千人也 太陽人數不過四五人已”

南中原野로 구분된 四象人의 분포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문헌에 비해 少陽人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sup>27)</sup>. 그런데, 東武가 64세까지 改抄한 辛丑本에는 甲午本의 내용보다 단순했던 草本卷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四象人의 분포가 기록되어 있다<sup>28)</sup>(표 4).

### ② 甲午抄錄本의 四象人 분포

이 중에서 다른 版本들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甲午抄錄本의 四象人 분포에 대해서 다양한 언급들이 있어 왔는데, 韓 등<sup>5)</sup>은 四象人의 분포와 관련된 첫 번째 條文이 만약 甲午本의 條文이라고 하면 그 뒤에 辛丑本의 두 번째 條文을 기술하고 條文引用表示를 해야 하였으나 하지 않았고, 이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存在하지 않기에 加筆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條文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安<sup>7)</sup>은 「四象人辨證論」에서 少陽人 數가 많다고 하는 서술<sup>29)</sup>이 太陰人 數를 전체의 절반이라고 한 「四象人辨證論」 첫 번째 조문의 서술과 문맥상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甲午本 저술 당시에 인식했던 함경도 인근의 少陽人 위주의 四象人 분포가 辛丑本 간행시에 太陰人 중심으로 바뀌었으나 미처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흔적이라고 추정하였다. 이것은 甲午抄錄本의 加筆 가능성은 배제하고, 辛丑本의 첫 번째 조문이 더욱 발전된 관점이 담긴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李<sup>6)</sup>는 甲午本의 내용 중에 다른 체

질보다 少陽人에 관한 조문이 많고, 草本卷 藥方에서도 少陽人 藥方을 처음에 기록하고 분량도 많은 것으로 볼 때 少陽人에게 그만큼 무게를 두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甲午本의 조문은 少陽人 數를 비교적 높게 보는 시점에서 기록한 조문이고<sup>30)</sup>, 草本卷과 辛丑本의 비율은 좀더 의학경험이 축적된 다음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31)</sup>.

그리고, 李<sup>28)</sup>는 草本卷을 저술한 이후에 더욱 발전된 의문이 담겨있는 辛丑本에서 草本卷에 서술된 四象人 분포와 유사한 내용을 실은 것은 오히려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 ③ 七版本의 四象人 분포

한편 ‘甲午抄錄本 본문과 七版本 본문의 출처 표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韓斗正은 七版本을 편집하면서 필요한 경우 조문 끝에 舊本, 新本, 印本 등으로 그 출처를 표시했는데, 庚子本이 그 출처인 경우에는 단 한 조문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新本)’이라고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고<sup>32)</sup>, 주로 甲午本이 출처인 경우에 ‘(舊本)’ 또는 ‘(以下舊本)’ 등으로 출처를 밝혀 놓았다. 그리고, 辛丑本이 출처인 경우에 ‘(印本)’으로 그 출처를 밝혀 놓았는데, 「四象人辨證論」의 四象人 분포에 관한 조문이 바로 그런 유형의 유일한 조문이다<sup>33)</sup>.

그런데, 이와 같이 韓斗正이 七版本에서 四

27)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四象人辨證論』: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 北道山谷一縣萬人數大略論之則 少陽人五千人也 太陰人三千人也 少陰人二千人也 太陽人數絕少一縣中或三四人十餘人而已. 以南中原野一縣萬人數大略論之則 少陽太陰人各四千人也 少陰人二千人也 太陽人數亦絕少一縣中或三四人十餘人而已”

28)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四象人辨證論』: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 一縣萬人數 大略論之 則太陰人五千人也 少陽人 三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絕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

29)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四象人辨證論』: “少陽人體形 上盛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 而人數亦多 四象人中 最爲易辨”

30) 甲午本에 少陽人에 관한 조문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少陽人의 비율을 높게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생각된다. 辛丑本에는 少陰人에 관한 조문과 처방이 제일 많지만, 少陰人의 분포비율을 가장 높게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31) 草本卷이 東武의 연령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일 때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草本卷에 좀더 의학경험이 축적된 관점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32) 『東醫壽世保元 七版本·四象人辨證論』의 “此書雖出今人之手 實是千古醫家稀罕之書 此書 任古今之是非 決醫藥之樞軸 雖一字 誤書 則爲作文者之大累(新本)”

33) 『東醫壽世保元 七版本·四象人辨證論』: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 一縣萬人數 大略論之 則太陰人 五千人也 少陽人 三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絕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印本).”

象人 분포에 관해 辛丑本의 기록을 그대로 적으면서 조문 끝에 굳이 ‘(印本)’이라고 그 출처를 밝혀 놓았다는 것은 이 조문이 甲午本이나 庚子本에는 없었고, 辛丑本에만 존재하는 조문이었음을 강하게 示唆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④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비교

이와 같은 七版本의 기록을 근거로 삼는다면,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甲午抄錄本의 첫 번째 조문은 가필된 것이 아니라 甲午本의 원래 조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韓 등<sup>5</sup>은 甲午本의 條文이라고 하면 그 뒤에 辛丑本의 두 번째 條文을 기술하고 條文引用表示를 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가필의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庚子本의 「四象人辨證論」 부분은 改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條文引用表示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처럼 甲午本의 조문이 맞다고 할 경우에, 「四象人辨證論」에서 少陽人 數가 많다고 하는 서술이 문맥상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安<sup>7</sup>이 지적했던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한다.

둘째로, 栗洞契가 辛丑本을 발행하면서 甲午抄錄本의 첫 번째 조문을 빼고, 辛丑本의 첫 번째 조문을 草本卷에 기술되었던 내용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栗洞契가 辛丑本을 發行하면서 庚子本 少陽人泛論 중에서 6條文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것을 고려하면, 栗洞契가 「四象人辨證論」에서도 단순히 甲午本과 庚子本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문을 가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草本卷 저술 이후 의학 경험을 더 쌓은 뒤에 저술된 甲午本에서는 四象人 분포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에 改抄된 辛丑本에서는 오히려 甲午本 이전에 저술된 草本卷의 서술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

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韓斗正이 왜 甲午抄錄本의 원형대로 복원시키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는데, 앞의 「少陽人泛論」의 경우와 유사하게 韓斗正이 七版本을 발행하면서 辛丑本의 전통을 존중하여 甲午抄錄本의 원형대로 복원시키지는 않고, 다만 조문의 출처가 ‘(舊本)’이나 ‘(新本)’이 아니라 ‘(印本)’임을 밝혀놓는 방법으로 그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四象人辨證論」 末尾에 기술된 조문

### ① 甲午抄錄本의 기록

甲午抄錄本의 「四象人辨證論」 末尾에는 “此書 雖出今人之手 實是千古醫家 稀罕之書 此書 任古今之是非 決醫藥之樞軸 雖一字誤書 則爲作文者之大累 出新本 無印本”라는 조문이 나온다. 이 조문은 끝에 ‘出新本 無印本’이라고 출처가 표시되어 있으며, 辛丑本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다.

이에 대해 韓 등<sup>5</sup>은 ‘이 條文은 문맥의 흐름상 旧本에는 없었으나 新本에 추가되었고 印本에는 제자들이 누락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太陽人論以下는 東武가 추함으로 인해 改抄하지 못했고, 이 條文은 발문에 더 가까운 내용으로 改抄 순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기에 加筆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하여 栗洞契의 누락 가능성과 後人의 加筆 가능성의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韓 등<sup>5</sup>은 이 조문에 대해서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庚子本의 條文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나, 과연 四象人 辨證論의 내용인지 아니면 加筆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로 남는다’라고 하여 七版本에 해당 조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 ② 七版本의 기록

韓 등<sup>5</sup>의 언급과 같이 七版本의 「四象人辨

證論」 末尾에는 “此書 雖出今人之手 實是千古醫家稀罕之書 此書 任古今之是非 決醫藥之樞軸 雖一字 誤書 則爲作文者之大累(新本)”이라는 조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자세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

하나는 ‘(新本)’이라고 출처를 밝혀 놓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조문이 다른 조문과 달리 작은 글자의 註 형태로 되어 있으며, 七版本 目錄에서 이 부분을 條文數로 합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의 ‘甲午抄錄本 본문과 七版本 본문의 출처 표시’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韓斗正은 庚子本이 그 출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新本)’이라고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 조문에서만 유일하게 ‘(新本)’이 출처라는 것을 밝혀놓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 조문은 辛丑本을 비롯한 七版本 이전의 다른 『東醫壽世保元』 版本에는 존재하지 않고 七版本에만 존재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韓斗正이 출처를 표시해 놓지 않고 조문만 추가했다면 다분히 加筆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이 조문이 庚子本에 존재했던 조문이었음을 ‘(新本)’이라는 출처 표시로 밝혀 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李<sup>19</sup>가 “李(李鎭胤)가 소장한 再版本은 李濟馬의 本家中에서 보관되어 오던 자료로, 그 史料의 가치가 높다. 이 자료의 「四象人辨證論」 末尾에 ‘大畏誤書落字 雖一字不可誤書落字 此書雖出今人之手 實是千古醫家稀罕之書 此書任古今之是非 沒醫藥之樞軸 雖一字誤書落字 則爲作文者之大累 「右三行辛丑開刊漏落故其後續刊全部漏落」”라는 문장을 李鎭胤(1894-1961)이 加筆한 記錄이 있는데…韓斗正은 李濟馬의 宗家中에서 保管중이던 再版本에 加筆된 일부 내용과 같은 문장을 七版本 「四象人辨證論」 末尾에 새롭게 추가하는데…”라고 그 내력을 밝힘으로써 사실 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게 되었다<sup>34</sup>).

즉, 이 조문이 원래 辛丑本 이전의 판본에

존재했던 내용이었으나, 辛丑本을 開刊하면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누락된 채로 발행되어 왔었고, 이에 대해 李鎭胤이 再版本에 적어 놓았던 것을 韓斗正이 七版本을 발행하면서 다시 복원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③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비교

이처럼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해당 조문 끝에 각각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出新本 無印本’과 ‘(新本)’의 출처표시와 李<sup>19</sup>가 밝힌 이 조문에 관한 내력 등을 종합해 보면,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四象人辨證論」 末尾에 기록되어 있던 조문은 加筆된 것이 아니라 甲午本과 庚子本에 원래 존재했던 조문이며<sup>35</sup>, 栗洞契가 辛丑本을 발행하면서 누락시킨 조문일 가능성이 높다.

甲午抄錄本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甲午本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七版本에서 ‘(舊本)’이 아니라 ‘(新本)’이라고만 출처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甲午本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太陰人諸論까지만 改抄했다는 七版本의 마지막 문장을 고려해 보면,

34) 참고로 李<sup>19</sup>는 “「四象人辨證論」에는 또한 太陽人女性이 ‘不能生產’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다른 版本의 ‘鮮能生產’과 差異가 있으나 이 역시 李濟馬의 宗家中에서 保管 중이던 再版本에 ‘鮮’을 ‘不’로 수정한 內容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를 七版本에 記錄한 것으로 생각된다. …李濟馬의 宗家中에서 보관중인 再版本에 加筆되거나 수정된 內容을 參照하여 發行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여 再版本에 수정되어 있는 문구가 하나 더 있으며 이것이 七版本 발행시에 반영되었음을 밝혔다.

35) 이 조문이 원래 甲午本과 庚子本에 존재했던 조문이라는 것의 또 다른 근거로 甲午抄錄本의 目錄에 기재된 條文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甲午抄錄本 目錄의 條文數를 보면 甲午本의 「四象人辨證論」 條文數를 ‘25加1’로 기록해 놓았고, 庚子本의 卷之四 條文數는 ‘71加1’로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加1’이라는 것이 「四象人辨證論」 末尾의 그 조문을 지칭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七版本 본문에서 이 부분이 작은 글자의 註 형태로 되어 있으며, 目錄에서 「四象人辨證論」의 條文數로 計數되지도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식 條文數로 산정하기에 애매하여서 ‘加1’로 표시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후에 加筆된 조문임을 밝히기 위해서 ‘加1’로 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도 생각된다.

甲午本과 庚子本 모두에 존재했던 것을 편이상(新本)으로만 출처를 기록해 놓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甲午本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栗洞契가 辛丑本을 발행하면서 이 조문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은 栗洞契가 庚子本 少陽人泛論 중에서 6條文을 누락시켰을 가능성과 「四象人辨證論」의 첫 번째 조문을 바꿨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것보다 맥락이 통한다.

다만, 이럴 경우에 庚子本 少陽人泛論의 6條文과 「四象人辨證論」의 첫 번째 조문은 韓斗正이 七版本을 발행하면서 원형대로 복원시키지 않았는데, 왜 「四象人辨證論」 末尾의 이 조문은 복원시켰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東醫壽世保元』 원문의 글자를 잘못 쓰거나 누락시키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조문 자체의 내용 때문에 복원시켰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29</sup>. 즉, 栗洞契가 辛丑本을 발행하면서 원문을 누락시키거나 변경시켰고, 이후에 발행된 版本들도 그것을 답습했기 때문에, 韓斗正이 七版本을 발행하면서 甲午本과 庚子本の 의미에 맞게끔 자세히 교정을 한 다음, 앞으로 후인들은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조문만은 복원시켜 놓았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辛丑本の 전통을 존중하고자, 다른 조문과는 다르게 작은 글자의 註 형태로 기록하고, 七版本 目錄에도 條文數로 합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四象人辨證論」 改抄 여부

韓 등<sup>5</sup>은 앞에 살펴본 「四象人辨證論」의 두 조문들의 가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四象人 辨證論의 改抄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四象人辨證論」은 庚子本에서 改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四象人 本포에 관한 甲午抄錄本의 첫 번째 조문은 加筆된 것이 아니라 甲午本의 원래 조문이었고, 庚子本의 첫 번째 조문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栗洞契가 辛丑本을 편집하면서 草本卷과 유사한 내용의 조문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四象人辨證論」 末尾에 기록되어 있던 조문은 加筆된 것이 아니라 甲午本과 庚子本에 존재했던 조문으로서, 栗洞契가 辛丑本을 발행하면서 누락시킨 조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辛丑本과 七版本에서 ‘太陰人諸論’까지만 改抄하였다고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6</sup>.

## 3. 甲午舊本 復元本과 「四象醫學」 원문편의 문제

앞에서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栗洞契가 辛丑本을 편집하면서 庚子本과 甲午本의 원형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부 조문을 가감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辛丑本보다는 七版本이 甲午本이나 庚子本の 원형에 가깝도록 교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래서, 논점에서는 다소 벗어나더라도, 辛丑本을 기반으로 복원된 甲午舊本 復元本<sup>20</sup>과 현재 전국한의과대학의 공통교재로 사용중인 『四象醫學』<sup>3</sup>의 원문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 1) 甲午舊本 復元本の 오류 가능성

2001년 8월 20일 四象體質醫學會에서 발행

36) 辛丑本에서는 “乙未下鄉 至于庚子 因本改抄 自性命論 至太陰人諸論 各有增刪而 太陽人以下三論 未有增刪”이라고 했고, 七版本에서는 “乙未下鄉 至于庚子 因本改抄 自醫源論 至太陰人諸論 各有增刪而 其餘諸論 未有增刪”이라고 해서 改抄를 시작한 부분이 性命論인지 醫源論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만, 太陰人諸論까지만 改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

된 甲午舊本 復元本の 일러두기에서는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미리 언급해 놓았는데<sup>37)</sup>, 이것은 甲午本과 庚子本の 원형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라고 생각 된다.

하지만, 甲午本을 복원할 때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辛丑本の 조문을 기계적으로 대입하게 된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辛丑本の 한계-庚子本の 원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함-로 인해 일부 조문이 부적절하게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甲午舊本 復元本에 복원되어 있는 鬱狂證, 亡陽證에 관련된 조문이 바로 그러한 예에 속하는데<sup>38)</sup>, 여기에서는 鬱狂證, 亡陽證에 관련된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써 甲午舊本 復元本の 오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대신하고자 한다

甲午舊本 復元本에는 鬱狂證과 亡陽證의 단계와 상호비교가 들어가 있는 부분<sup>39)</sup>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辛丑本에 있던 조문으로서 甲午抄錄本の “張仲景曰陽明病有三病. 下三條出新本”이라는 조문을 근거로 甲午本을 복원하면서 들어가게 된 3개의 조문중 세 번째 조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면이 있어 복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로, 甲午本 저술 당시는 鬱狂證과 亡陽證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지도 않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鬱狂證과 亡陽證을 각각 初證, 中證, 末證으로 상세히 구분해서 보는 관점이 존재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東武는 甲午本 저술 당시에는 少陰人 表病을 크게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분류해서 설명하다가, 辛丑本을 저술하면서 병증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켜 鬱狂證과 亡陽證이라는 새로운 분류로 少陰人 表病을 설명하게 된다.

즉, 甲午本 저술 당시에는 鬱狂證과 亡陽證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甲午本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鬱狂證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辛丑本에서 亡陽證에 대한 임상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少陽人의 亡陰證과 비교하면서 병리기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임상적인 중요성에 대해 매우 강조했던 것과 달리, 甲午本에서는 병리기전에 대한 설명도 없고, 기존에 존재하던 亡陽에 대한 인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亡陽을 언급하고 있다<sup>40)</sup>.

따라서, 鬱狂證과 亡陽證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鬱狂證과 亡陽證을 각각 初證, 中證, 末證으로 상세히 구분해서 보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甲午舊本 復元本の 조문 복원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鬱狂證, 亡陽

37)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 復元本』의 일러두기에는 “본 글은 이러한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을 근거로 하여 인본(辛丑本)의 해당 조문을 삼입하여 1894년에 저술된 ‘東醫壽世保元’ 갑오 구본을 복원하고자 시도한 것이므로 혹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나 1894년 ‘東醫壽世保元’이 정확히 발굴되기 전까지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어 발간하게 되었다”라고 밝혀 놓고 있다.

38) 이로 인해 이전에 언급되었던 甲午本 病證論에 관한 연구들에서 甲午本에서 鬱狂證, 亡陽證으로 병증을 구분하는 시각이 있었다고 서술하는 혼란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조문들에 대한 보다 진전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9)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外感病論』: “胃家實 脾約二病 如陰證之太陰少陰病 虛實證狀 顯然不同 自太陽病 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歧 元不相合. 太陽病 表證因在而 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陽明病 潮熱 狂言 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太陽病 發熱惡寒 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陽明病 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蓋鬱狂證 都是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身熱 自汗出也.”

40) 醫書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동무가 망양에 대해 언급한 조문은 오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조문 외에 다음의 두 가지 조문 밖에 없다. ①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外感病論』: “論曰 少陰人汗 當觀於人之汗不汗也. 全體雖不汗而人中發汗則 眞汗也. 全體雖汗而人中不發汗則 亡陽也. 少陰人病 亡陽最可惡也. 當用芩桂急救之 不可等閑任置之.” ②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外感病論』: “巴豆 太陰證之要藥也. 太陽證或用之者 少腹硬滿之證兼太陰積滯故也. 大忌陽明證 若亡陽誤用則危.”

證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문맥의 흐름이 부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甲午舊本 復元本の 조문 복원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

甲午舊本 復元本에서 해당 조문의 전후 내용을 함께 보게 되면 太陽病胃家實과 陽明病脾約이 서로 별개의 病證임을 설명하다가<sup>41)</sup>, 갑자기 鬱狂證의 初中末證, 亡陽證의 初中末證을 설명하고, 鬱狂證과 亡陽證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sup>42)</sup>. 그리고, 그 다음 조문에서는 太陽力屈之病과 陽明勢孤之病이라는 太陽病과 陽明病의 병증 차이에 관한 설명이 다시 나오게 된다<sup>43)</sup>. 즉 鬱狂證과 亡陽證에 대한 언급이 존재함으로써 太陽病과 陽明病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문맥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甲午舊本 復元本の 조문 복원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甲午舊本 復元本에서 鬱狂證, 亡陽證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甲午抄錄本の “下三條出新本”이라는 내용을 보면 복원되어야 할 條文數가 3개의 조문이어야 하고, 문제가 되는 조문의 앞부분은 胃家實과 脾約의 구분이라는 문맥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모두 삭제하기 보다

는 조문의 앞부분<sup>44)</sup>까지는 甲午舊本으로 복원시키고, 鬱狂證과 亡陽證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뒷부분<sup>45)</sup>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2) 『四象醫學』 원문편의 교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七版本은 辛丑本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甲午本이나 庚子本의 원형에 더욱 가깝고자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七版本에는 본문에 懸吐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篇名, 條文數 등이 기재되어 있는 目錄이 추가되어 있고, 補遺方<sup>46)</sup>, 判 권기록, 字解, 吐解 등이 기록되어 있는 附錄이 추가되어 있다.

이것은 辛丑本 발행 이후 辛丑本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서 발행되었던 이전의 版本들에 비해, 七版本이 정확성과 상세함의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七版本의 성과를 볼 때, 『四象醫學』의 원문편은 七版本을 底本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四象醫學』 원문편을 살펴보면, 원문 자체는 대부분 七版本을 기준으로 하였으나<sup>47)</sup>, 일부 조문에서 조문번호가 七版本과 다르게 붙여져서 전체 條文數가 七版本과 다르게 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sup>48)</sup>. 그리고,

41)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外感病論』: “論曰張仲景所論陽明三病…然 脾約 自脾約也 胃家實 自胃家實也 寧有其病 先自脾約而後 至於胃家實之理耶.”

胃家實 脾約二病 如陰證之太陰少陰病 虛實證狀 顯然不同 自太陽病 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歧 元不相合”

42)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外感病論』: “太陽病 表證因在而 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陽明病 潮熱狂言 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太陽病 發熱惡寒 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陽明病 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蓋鬱狂證 都是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身熱 自汗出也.”

43)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外感病論』: “膀胱者 陰之分局也. 陰氣者 寒氣也. 膈膜者 陽之分局也. 陽氣者 熱氣也. 膀胱表局 外禦之陽不足而 正邪相爭於膀胱之表局者 以正犯邪故惡寒也. 惡寒不作者 正不退邪也. 正不退邪者 太陽力屈之病也. 膈膜裏局 內守之陽不足而 正邪相爭於膈膜之裏局者 以邪犯正故煩熱也. 煩熱虛張者 邪益逼正也. 邪益逼正者 即陽明勢孤之病也. 二證俱爲重險證 當用藥急救之 不用藥急救之則 重者必危 危者必傾.”

44)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外感病論』: “胃家實 脾約二病 如陰證之太陰少陰病 虛實證狀 顯然不同 自太陽病 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歧 元不相合.”

45)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外感病論』: “太陽病 表證因在而 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蓋鬱狂證 都是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身熱 自汗出也.”

46) 附:補遺方에는 辛丑本 본문에는 나오지만 藥方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처방, 辛丑本에는 나오지 않지만 (海東) 『東武遺稿』에 나오는 처방 등을 보충시켜 놓았다. 특히 辛丑本 본문에 나오는 처방들은 처방명 아래에 七版本 본문의 몇 번째 板에서 나오는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

47) 논란이 되었던 「四象人辨證論」의 “此書 雖出今人之手 實是千古醫家稀罕之書 此書 任古今之是非 決醫藥之樞軸 雖一字 誤書 則爲作文者之大累(新本)”라는 조문은 『四象醫學』에서 빠져 있다.

48) 『太陰人胃腕受寒寒病論』, 『太陰人肝受熱熱寒病論』, 『廣濟說』, 『辨證論』에서 조문번호가 차



『四象醫學』 원문편에는 懸吐가 되어 있지 않고, 目錄도 존재하지 않으며, 補遺方, 字解, 吐解 등이 기록되어 있는 附錄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七版本의 성과를 반영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sup>49)</sup>, 目錄과 條文數에 관련된 부분은 향후 학술활동의 편의<sup>50)</sup>과 통일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七版本의 처방편에서 조문구분표시(○)가 있으면서, 條文數로 산정되어 있는 조문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sup>51)</sup>.

그리고,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東醫壽世保元』 원문 중 일부를 구술시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미전달의 명확성과 통일성 향상을 위해, 懸吐를 하고, 字解를 해 놓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補遺方 중에서 辛丑本 본문에는 나오지만 藥方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처방들<sup>52)</sup>은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중 일부는 甲午本의 처방과 동일하기도 하지만, 처방구성이 甲午本과 다른 처방도 분명히 존재하며, 결정적으로 『四象醫學』에는 甲午本 원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IV. 結 論

이한다. 七版本 목록에서는 각각 11조문, 36조문, 25조문, 25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四象醫學』에서는 각각 13조문, 40조문, 23조문, 29조문으로 되어 있다.

- 49) 少陽人泛論의 조문수만 제외하면, 七版本의 조문수는 辛丑本의 전통을 최대한 살려서 조문수를 헤아린 것으로 생각된다.
- 50) 『東醫壽世保元』의 조문을 인용할 때 문장 전체를 인용하는 것보다는 章과 節의 번호만 인용하는 것이 보다 더 편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 51) 七版本 目錄의 「少陰人經驗藥方」 1조문, 「少陰人新定藥方」 1조문, 「少陽人 經驗藥」 4조문, 「太陽人新定藥方」 2조문 등이 그것에 해당된다.
- 52) 補遺方 중에서 辛丑本 본문에는 나오지만 藥方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처방으로는 桂附霍陳理中湯, 獨參官桂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 豬苓白虎湯, 葛根蘿卜子湯, 瀉心湯, 獨參湯 등이 있다.

#### 1.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은 다음과 같은 관련성이 있었다.

- 1) 甲午抄錄本의 筆寫 주도자와 七版本의 편집, 발행자가 모두 保元契에 속해 있었으며, ‘川西面 雲洞理’라는 지역적인 관련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두 문헌은 공통적으로 東武 저작물의 간행이 활발했던 194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성립되었다.
- 3) 두 문헌은 目錄과 條文數가 존재한다는 점, 目錄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 「少陽人 泛論」의 조문수를 29條文으로 동일하게 기재한 점, 庚子本에서 改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표시가 일치하는 점, ‘備考’(版本에 대한 설명)가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서로 공통점을 나타낸다.
- 4) 四象人 분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七版本 본문의 출처 표시와 甲午抄錄本 본문의 출처 표시가 내용상 대부분 일치한다.

#### 2.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을 비교해 봄으로써 「四象人辨證論」에 관한 논란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었다.

- 1) 甲午抄錄本 「四象人辨證論」의 첫 번째 조문이 東武가 사상인의 분포에 관해 최종적으로 문헌에 기술한 조문이고, 辛丑本의 조문은 栗洞契가 辛丑本을 발행하면서 임의로 바꾼 조문일 가능성이 높다.
- 2) 甲午抄錄本과 七版本의 「四象人辨證論」末尾에 기술된 “此書 雖出今人之手…爲作文者之大累”라는 조문은 원래 甲午本과 庚子本에 존재했었으나, 栗洞契가 辛丑本을 발행하면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 3) 庚子本에서 「四象人辨證論」은 改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庚子本에는 「四象人辨證論」에 조문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3. 庚子本の 원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辛丑本の 한계와, 정확성과 상세함을 갖춘 七版本의 성과를 고려해 볼 때, 甲午舊本 復元本과 『四象醫學』 원문면 중 일부는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1) 甲午本 저술 당시 東武의 의학수준과 해당 조문의 前後 문맥을 고려해 볼 때, 甲午舊本 復元本の 「少陰人外感瘧病論」에서 鬱狂 初中末證, 亡陽 初中末證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2) 『四象醫學』의 원문편은 七版本을 底本으로 삼아서, 조문번호 등을 교정하고 누락된 조문을 復元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參考文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2. 李濟馬.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 金重瑞方, 함흥, 1941.
3.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敎室. 改訂增補四象醫學. 2판, 集文堂, 서울, 2004.
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서울, 2000.
5.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書誌學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 94-109.
6. 이경성. 甲午本 『東醫壽世保元』의 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0;6(1): 13-27.
7. 안상우. 한국의학자료집성Ⅱ(해제편). 한국한의학연구원, 서울, 2001
8.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病證論에 관한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 34-50.
9. 이준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49-61.
10.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舊本)과 辛丑本(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62-73.
11.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太陰人 病證을 중심으로 版本에 따른 병증 개념의 변화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6(1):26-33.
12. 석재화, 함통일, 황민우, 고병희, 송일병, 이수경. 少陰人 霍亂 病證에 대한 考察 (『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2):92-98.
13. 함통일, 황민우, 김상복, 이수경, 송일병, 고병희.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을 통한 少陰人 黃疸에 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2):85-91.
14. 조성규, 배효상.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 기재된 大便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7;19(3):10-19.
15.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藥方』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74-93.
16. 한경석, 박성식. 少陽人 藥理의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18(3):38-48.
17. 한경석, 박성식. 少陰人 藥理의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18(2):15-24.
18. 김명균, 박성식. 四象體質別 藥物의 混用에 관한 文獻의 研究(『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 17(1):33-44.
19. 이경성. 『東醫壽世保元』 版本에 對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3):1-11.
20.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서울, 2001.

21. 李濟馬.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1972.
22. 朴奭彦 編譯. 東醫四象大全. 醫道韓國社, 서울, 1977.
23. 이제마 著, 이창일 譯. 東武遺稿. 초판. 정계출판사, 서울, 1999.
24. 정진석. 인론통제 검열기구 총독부 경무국 도서관. 관훈저널. 2004;겨울호:83-105.
25. 광동철. 日帝治下 圖書館에서의 知的自由에 관한 考察. 인문과학논집. 2000;20:379-413
26. 이수경, 송일병.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 63-78.
27. 李濟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刊行, 서울, 2000.
28. 이태규, 황민우, 함통일, 이수경, 최봉근, 고병희, 송일병. 韓國人の 四象人 分布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3):12-21.
29. <http://blog.naver.com/muhodol?Redirect=Log&logNo=60049253547>